

2024. 1. 31.(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추후제공)

쪽수: 4쪽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02-2133-3670
자원순환정책팀장	이소연	02-2133-3672
관련 누리집	http://www.seoul.go.kr	

서울시 내 4,400여개 어린이집 배출 우유팩, 노트·스케치북으로 재탄생

- 30일(화) 서울시 등 6개 기관 ‘서울시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순환 동행 협약’ 체결
- 어린이집 배출 종이팩 수거·세척 후 재생용지 생산, 재생용지 활용해 학용품 제작 방식
- 종이팩으로 만든 재생 노트, 스케치북 등 서울시 소재 공부방에 기부로 나눔 실천
- 오 시장, “재활용 순환 체계 구축과 함께 미래 주역들에게 환경보호 의식 심어줄 기회”

- 우유·두유 등 음료 섭취량이 많은 서울시 내 4,431개 어린이집에서 배출된 종이팩이 노트·스케치북 등 재생용지 학용품으로 거듭난다. 민관이 손을 잡고 재활용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 환경 살리기에 나선 것. 이를 통해 연간 160톤 상당의 종이팩이 재생용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1월 30일(화) 오후 3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5개 기업 및 단체와 ‘서울시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순환 동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에는 ▲서울시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 ▲CJ대한통운(주)

▲대흥리사이클링(주) ▲한솔제지(주) ▲에스아이지 코리아 가 참여한다.

- 2013년 35%였던 국내 종이팩 재활용률은 2022년 14%로 10년 동안 절반 이상 떨어진 상황이다.(출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제작돼 휴지·종이·핸드타월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자원이나,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 별도로 분리배출을 해야 양질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 일반팩은 폴리에틸렌(PE) 코팅, 멸균팩은 PE와 알루미늄 코팅

- 서울시 내 4,431개 어린이집에서 수거되는 종이팩은 연간 160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를 종이 원료인 펄프로 가공할 경우 약 120톤을 생산할 수 있다.

○ 어린이집 현황(2023년 기준) : 4,431개소

※ (국공립) 1,836, (사회복지법인) 18, (법인·단체 등) 75,
(민간) 912, (가정) 1,258, (협동) 25, (직장) 307

<어린이집 배출 종이팩 수거·세척 후 재생용지 생산, 재생용지 활용해 학용품 제작 방식>

- 종이팩이 재생용지 학용품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내 어린이집에서 우유팩을 제대로 분리·배출하면, 'CJ대한통운'이 종이팩을 수거·운반하고 '(주)대흥리사이클링'이 종이팩 선별 처리과정을 거친다. 이후 '한솔제지(주)'는 이를 활용해 재생 용지를 생산하고 '에스아이지 코리아'는 재생 용지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매우 큰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CJ대한통운(주): 전국적인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종이팩 수거·운반

- (주)대흥리사이클링: 수거된 종이팩을 최신 광학선별 기술을 이용하여 분류
 - 한솔제지(주): 선별된 종이팩을 원료로 재활용하여 재생 용지 생산
 - 에스아이지 코리아: 재생 용지를 이용하여 기부하기 위한 학용품 생산
- 서울시는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총괄해 협약 참여 기관·기업들을 조율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적극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아울러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 (주)대흥리사이클링은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등 참여 기관은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지원한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수거된 종이팩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공책과 스케치북 등으로 제작되며, 이는 CJ나눔재단을 통해 서울시 소재 어린이 공부방에 전달 예정이다. 공부방 아이들이 재활용 학용품을 직접 사용해 보며 가치를 효용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
- 또 분리배출 우수 어린이집에는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시상한다.
- 한편 협약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현숙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4개 분과(국공립·민간·가정·직장) 어린이연합회 회장

단,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혜란 (주)대흥리사이클링 대표이사, 한철규 한솔제지(주) 대표이사, 조명현 에스아이지 코리아 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 오세훈 시장은 “이번 협약은 종이팩 재활용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의미도 크지만 특히 미래 주역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환경을 스스로 보호하고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교육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시는 사업이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